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 자녀 20살때 세대분리 청약저축 들어야

## 매달 10만원씩 10년 납입면 1,200만원 적립 공공주택 당첨확률 90% 이상... 목돈 부담없어

은퇴를 앞둔 50대들의 고민은 정작 은퇴 후에 써야 할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목돈이 들어간다는 데 있다. 은퇴는 점점 짧아지는데 자녀의 출산시기는 늦어지다보니 50대 초반이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자녀는 대학을 마치고 교육자금과 함께 졸업 후에는 결혼자금까지 들어가다 보니 은퇴후에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자녀를 보육하고 대학까지 마치게 하는데 1명당 2억원이 필요한데 거기가 결혼자금까지 대려고 하면 부모의 허리는 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1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비교하면 매월 70만원의 투자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5년후 5천만원 이상의 자산 증식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커져만 갈 것이다.

여유만 있다면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자신의 노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결혼을 위해 무리를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므로 합리적인 접근을 찾아 자녀의 독립을 도우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독립시 주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다. 만약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만큼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만 20세가 되는 시점에 자녀를 독립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며,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1순위 자격을 주는데, 동일 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서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청약저축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게 된다. 흔히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나이가 어린 세대주나 신혼부부의 경우 막연히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민영주택에 해당되는 내 용이며,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와 는 관계없이 청약저축 적립액을 기준으

로 분양이 이루어 지게 된다. 청약저축은 월 불입액 10만원이 한도이므로 자녀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면, 자녀가 30세 가 되었을 경우 청약저축 적립액은 1천 2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공공 분양시 당첨확률을 거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즉, 30세에 사회에 진출해 청약저축을 가입할 경우 공공주택 분양 자격이 가능 해지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부모 가 청약저축에 미리 가입했다면 자녀 가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 어느 지역에 분양신청을 해도 당첨 가능한 통장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TNV이티브이/IFF팀장)

자녀에 내집 마련해 주려면...

근로자 '장시간 노동빈도'

## 한국, 세계 2위

ILO, 41개국 조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49.5%가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 발표한 '전세계의 노동시간'에 따르면, 2004~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incidence of long working hours)는 49.5%로서 페루(50.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장시간 노동빈도는 전체 근로자 중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3~5위는 에티오피아(41.2%), 마카오(39.1%), 아르메니아(29.9%)가 차지했고, 6~10위에는 과테말라(28.5%), 아르헨티나(28.4%), 멕시코(26.2%), 이스라엘(25.5%), 뉴질랜드(23.6%)가 포함됐다. 선진국 가운데는 스위스(19.2%·16위), 미국(18.1%·19위), 일본(17.7%·공동 20위), 프랑스(14.7%·23위) 등이었다. 특히 최근 각종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5.3%(37위)와 9.7%(31위)로 장시간 노동빈도가 매우 낮으면서도 고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국내 경제 회복 국면”

## 정부 공식화... 소비·투자 등 내수지표 개선

정부는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 개선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조원동 재정부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경기 판단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등 내수지표의 완만한 개선, 4월 산업생산 회복세와 재고 순환 플러스 전환 등이 회복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수출과 관련해서도 “6월 수출은 중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수요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그린북)에서도 “최근 소비 회복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득 등 소비여건

개선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1·4분기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다소 확대, 4%대 증가율을 회복했으며 4월 소비재판매도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4.9% 증가하면서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4월 설비투자 추세가 기계류 투자 호조 등으로 15.6% 증가하는 등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건설경기도 지난해 부진에 따른 지지효과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4월에는 배당 지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5월에는 통관수출입차 4월 6억4천만달러에서 5월 14억8천만달러로 확대된 것 등을 감안할 때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삼성 'UCC용 캠코더(VM-X300)' 출시  
코더(VM-X300)를 출시해 인기몰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7일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인 반면 가격은 크게 낮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용 캠 코더(VM-X300)'를 출시해 인기몰이에 나섰다. /연합뉴스

## LPG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초저공해차량'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월1일부터 LPG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저공해차량(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LPG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가 2.61g/km에서 1.31g/km로, 질소산화물은 0.37g/km에서 0.044g/km로, 탄화수소는 0.097g/km에서 0.034g/km로 강화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어든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2004년 12월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한 뒤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러지가 LPG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액체상태의 LPG연료를 흡기관에 분사하는 LPI(Liquid Petroleum Injection)기술을 개발해 쏘나타와 TG 그랜저에 활용했다. 지엠대우는 LPG연료를 흡기관에 가스상태로 분사하는 기체분사기술을 토스카에, 르노삼성은 LPLi(Liquid Phase LPG injection) 기술을 택시와 장애인용 2.0L 급 승용차에 적용했다. 이들 저공해 LPG차량 개발을 위해 지난 2년6개월 동안 정부 39억2천만원, 민간 51억원 등 모두 89억2천만원의 자본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 코스피 1,753 '초강세'

## 본격 유입 주식형펀드만 40조 육박

코스피지수가 1,750선을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이자 국내 주식형펀드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6일 연속 설장전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가 1,753.04로 마감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주식형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 1,700선을 돌파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주식형펀드설장전고는 지난 2일 기준 56조6천771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5조4천억원 가량 늘었다. 해외 주식형펀드 신고가 4조4천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은 1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 신고는 6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38조9천601억원을 기록, 4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달 중순만 해도 하루 평균 100억~3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나 최근 들어선 1천억원 이상씩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3천8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국내 주식형펀드에 몰렸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올해 초반 코스피 지수가 1,400~1,500선으로 오를 때는 투자자들의 환매로 지난 4월에만 2조9천억원의 자금이 이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수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해 중순부터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더구나 흥국증권이 7일 코스피지수의 1년 전만치를 최고 2,130까지 제시해 주식형펀드 증가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매니저는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매니저는 “당분간 운용 성과가 좋은 펀드나 신규 출시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재정부 차관보 “유류세제 현행대로 유지”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유류소비가 촉진되고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류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종량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가격 상승을 완충시켜주고 하락시에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우리가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유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가대비 유류세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여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유류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 아파트 '고가추세'

## 1억미만 서민아파트 비중 3년새 12% 감소

## 서울 등 수도권 10억이상 아파트 3%대 육박

최근 3년새 1억 미만 서민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체 아파트에서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대로 떨어진 반면 1억원 이상 아파트는 3년간 12% 가량 늘어나는 등 고가아파트의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광주에서 매매시세가 비교가능한 아파트 21만1천636가구 가운데 1억원 미만은 14만8천94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 전체 아파트의 70.4% 수준으로, 3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82%)보다 1억원 미만의 비중이 12% 가량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반면 1억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에서 1억원대 아파트의 비중은 2004년 15.8%에서

23.5%로 7.7% 늘었고, 2억원대도 4.9%로 3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3억원 이상 아파트도 2천645가구에 달하면서 3년 전(285가구)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3억원대는 1천892가구에 달했으며, 4억원대도 753가구를 차지하는 등 아파트의 고가추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지역도 전체 아파트(10만8천937가구) 가운데 1억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89.6%(9만6천807가구)로, 3년 전(95.4%)보다 5.8% 감소했다. 반면 1억원대 아파트의 비중은 9.56%(1만339가구)로 3년 전(4.52%)보다 5% 증가했다. 2억원 이상 아파트는 947가구로, 3년 전(108가구)보다 8배 가량 늘었다. 이같은 아파트 고가추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전국의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94만773가구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점유율 38.3%

비중	1억미만	1억원대	2억원대	3억원대	4억원대
광주	70.38	23.47	4.90	0.89	0.36
전남	89.56	9.56	0.78	0.10	-
서울	1.66	14.78	19.07	15.35	11.62
인천	26.37	43.65	20.76	5.82	1.57
부산	47.98	37.73	10.68	2.45	0.76
전국	29.83	29.93	14.9	8.24	5.15

보다 8.5% 가량 낮아진 것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가격대별 비중은 2억원대가 14.4%에서 15%로 높아진 것을 비롯, ▲3억원대 6%→8.2% ▲4억원대 3.5%→5.2% ▲5억원대 1.8%→3.4% ▲6억원 이상 3.3%→8.5% 등으로 고가일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3년 전 전체의 0.6%에 불과했던 1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비중은 2.8%까지 늘어났다. 또 10억원 이상 아파트(15만9천711가구) 가운데 81.5%(13만2122가구)는 강남·서초 등 '버블세븐'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시중銀, 체크카드 수수료 1,900억 부담이득

### 노회찬 민노당의원 주장

주요 시중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지난해 동안 1천9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이익을 벌어들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체크카드 이용 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7대 시중은행들이 부담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2006년 한해 동안 1천891억원의 부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은행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2천600억원 중 체크카드와 무관한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비용은 709억원에 불과했다"며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중 부담이득 비중은 전체 수수료 중 약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식품연구 '미생물균주 은행' 전통 발효식품 고품질화 견인

김치, 장류, 젓갈, 민속주 등에서 분리된 8천여 종의 미생물 균주를 보관, 분양하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미생물 균주 은행'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고품질화를 주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차성관 박사 연구팀이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식품미생물 균주 은행'은 연간 2천~3천여건의 균주 분양 건수를 기록하면서 식품미생물 균주의 최고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미생물 균주 은행은 몇 곳 있으나, 전문적인 식품 미생물 균주를 다루는 곳은 식품연구원의 균주 은행이 유일하다. 차 박사는 보관 중인 8천여종의 식품 미생물 균주 중에서 지난해까지 장류 관련 균주 2천여 종에 대해 이미 분석작업을 마쳤으며, 올 연말까지 김치 관련 균주 2천여종, 내년에는 젓갈 관련 균주 2천여종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연구팀은 또 이들 균주를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차 박사는 "지금까지 김치, 장류, 젓갈 등 발효식품 산업에서 적당한 온도만으로 자연발효를 해서 식품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주를 개발, 넣으면 더 좋은 품질의 식품을 만들 수 있다"며 균주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연구원의 균주은행에 관한 정보는 국가생물자원정보포털사이트(www.bioall.org)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연합뉴스